



## 간추린 청렴 소식

### [1] 검찰본부, '행동강령 업무편람' 등 개정 배포

대검찰청 검찰본부(본부장 정병하)에서는 2019. 6. 25. 개정 조문과 새로운 판례 등을 반영한 '검찰청 공무원 행동



강령 업무편람' 및 '청탁금지법 주요 내용'을 전국 청에 배포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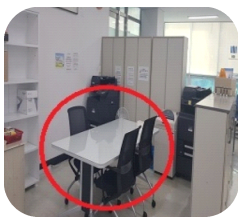
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올바른 이행을 위해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내용숙지를 당부드립니다 ^^

### [2] 대전지검, '변호사 사무실 직원과의 간담회' 실시

대전지검(검사장 조상철)에서는 2019. 6. 4. '기록열람 등사 담당자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의 간담회'를 실시하고 업무 개선 건의사항 등 관련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.

논의된 안건의 이해여부를 검토하는 등 상호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^^

### [3] 목포지청, '기록 열람·등사실 환경' 개선



목포지청(지청장 정진기)에서는 2019. 5. 17. 열람·등사 업무구역을 넓히고 작업용 테이블을 큰 것으로 교체 하는 등 열람·등사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.

민원 환경 개선을 위한 목포지청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♪

### [4] 제천지청, '공무원 행동강령 교육' 실시

제천지청(지청장 서정민)에서는 2019. 6. 4. 전 직원을 대상으로 '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'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

지청장 직접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♡



## 칭찬합니다

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. 이번 주인공은

인천지검 **손수진 검사** 입니다.

인천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는 손수진 검사는 엄정한 사건처리 중에서도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끔하지만 인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아 2019. 1.부터 6.까지 4건의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. 아래는 손수진 검사에게 온 감사편지 중 일부입니다.

... 살아오면서 여러번 구치소에 드나들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검사님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겨 꼭 단약하고 출소 후에 치료도 받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. (2019.6. 감사편지 중...)

... 따끔한 말씀과 더불어 정말 인간적으로 대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던 검사님 덕분에 뒤늦은 깨달음으로 하루 하루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..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(2019.4. 감사편지 중...)

##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! 감성충전, 청렴 명대사

두려움을 없앨 순 없어, 그건 본능이야  
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견뎌 나가다 보면  
진정한 용기를 찾게될거야

- 영화 '굿 다이노(The Good Dinosaur)' 중 -



7월의 추천영화는 **굿 다이노**  
(2016년 개봉 / 감독 피터슨)입니다.

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이는 위 영화는 작은 몸집 탓에 소심한 성격이었던 공룡 '알로'가 강물이 불어나는 사고로 아빠를 잃고 집에서 멀어지게 된 후, 인간 꼬마 '스팟'과 함께 가족을 찾아다니며 대자연 속에서 겪는 모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입니다.

눈 앞에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.  
이때 포기하지 말고 올바른 소신을 믿고 나가보세요 ^^  
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

## 청렴 상식이 쑥쑥!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사지(四知)



후한시대 관서지방 사람 양진(楊震, 54~124)은 젊어서부터 학문에 밝고 인품이 높아 관서의 공자'라 불렸으며 청렴한 생활로 태수의 벼슬까지 올랐습니다.

그런 그에게 하루는 창읍의 현령인 왕밀이 찾아와 과거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천거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소매 속에서 황금 열 근을 내놓았습니다.

양진은 점잖게 거절하며

"자네의 학식과 인품으로 추천한 것일세,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는가? 나라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 내게 보답하는 길일세" 라고 하였으나 왕밀은

"이것은 다만 제 성의입니다.

지금은 늦은 밤이고, 방 안에는 우리 둘 뿐이니,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"

라며 재차 권하였습니다. 이에 양진은

"하늘이 알고, 땅이 알고,  
그대가 알고, 내가 하는데  
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!"

天知·地知·子知·我知(四知), 何謂無知  
- 천지·지지·자지·아지(사지), 하위무지 -

라며 그를 나무랐고, 왕밀은 부끄러워 하며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.

잠시 타인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

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.

또한 스스로 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

폭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.

'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며 평평하게 살아가는 것이'  
진정 청렴한 삶이 아닐까요?



## 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 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폰을 통해 후대 사람들에게 **군주의 거울이 될 최고의 모델**로 제시되었으며, 부하들과 같은 위치에서 소통하며 공감하는 **파토스의 리더십**을 실천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은 **이 사람은 누구일까요**

- ① 키루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람세스

※ 힌트 : Monthly청렴 6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 **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**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  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

- ★ 응모기간 : 2019. 7. 22.까지  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6월 정답은

① **세계 행복 보고서** 였습니다.
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^^



축!  
당첨

안○○(서울북부), 류○○(부산서부), 박○○(서울남부),  
반○○(춘천), 이○○(서울서부), 안○○(성남),  
최○○(여주), 강○○(마산), 이○○(천안), 한○○(외부)



## 민원인의 목소리

민원인의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

문건을 접수할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응대를 합니다. 모두에게 질할 순 없으나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게라도 최소한 친절하게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

여러 민원인을 상대하며 서류 확인에 집중하다 의도치 않게 보여진 모습일 수 있겠지만, 한번쯤 민원인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.

친절하게 해주어 필요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니다. 법적으로 의문나는 것도 질문했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주어 참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니다. 매우 고맙습니다.

친절과 충분한 안내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목포지청 열람등사(확정등) 담당자에 대한 칭찬의견입니다~ ^^\*



투명한 검찰, 바른 검찰, 열린 검찰